

정용진 부회장이 그리는 '유통×야구' 큰 그림

'체험' 구매하는 시대... 신세계의 모든 길 '야구'로 통한다

야구단 'SSG 랜더스' 창단 기념
이마트·SSG닷컴 등 초특가 할인
추신수 별명 딴 '추추' 제품 시동
야구 관람석에 스벅커피도 배달
문학구장→돔구장 현대화 염두
맥주 상표권 출원으로 시너지 기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SSG 랜더스 구단 주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SSG 랜더스 창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야구단과 본업인 유통업을 어떻게 연계해 시너지를 낼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찍이 '체험형 유통 모델'을 강조해 온 정 부회장은 올초 SK 와이번스를 1352억8000만원에 인수했다.

지난달 신세계그룹의 야구단 'SSG 랜더스' 창단식에서 정 부회장이 "본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겠다"고 선언한 만큼 계열사를 총동원한 스포츠 마케팅을 본격화할 움직임이다.

그 일환으로 이마트와 온라인몰 SSG닷컴에서는 신세계그룹 야구단 'SSG 랜더스' 창단·개막을 기념해 초특가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 1일부터 4일까지 500여종이 넘는 품목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편의점 이마트24에서는 7일까지 음료, 아이스크림, 쿠키/스낵 등 인기상품 32종에 대해 1+1, 2+1 증정 행사를 전개한다.

향후 스타벅스와 노브랜드 등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 부회장은 야구장 안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자리로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인지도가 높은 선수를 활용한 상품 출시도 예상된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추추바', '추추빵빵' 등의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다. '추추'는 SSG 랜더스의 첫 번째 영입 선수인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의 별명을 떠올리게 한다.

정 부회장은 꾸준히 '체험형 유통 모델'을 강조해왔다. 2016년 스타필드 하남 개점 당시에도 "향후 유통업의 경쟁



이마트가 야구단 SSG랜더스의 창단을 기념해 할인 행사 '랜더스데이'를 시작한 1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 랜더스데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4일까지 선보인다. /뉴스1

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세계는 정 부회장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SSG랜더스의 홈구장인 인천 문학경기장을 스포츠와 쇼핑,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낡은 경기장을 '돔구장'으로 현대화하는 인프라 투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는 이번 야구단 인수를 통해 고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충성 고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야구팬층과 유통 시장을 주도하는 세대가 겹치는 점에 주목했다.

프로야구는 국내 스포츠 중에서 팬덤을 가장 많이 확보한 종목 중 하나이며, 평균 관중수(코로나19 이전)가 800만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이 MZ세대에 해당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야구팬층은 모바일 환경과 SNS에 익숙한 MZ세대가 주축을 이룬다"며 "야구팬과 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접목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SSG닷컴 등 브랜드 파워를 통한 시너지 제고와 연계 마케팅, 야구 관련 PL(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등으로 고객 유입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 문학구장을 찾은 야구팬들에게

신세계그룹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 선보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온·오프라인 충성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신세계L&B를 주축으로 한 맥주 사업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세계 L&B는 '렛츠 프레시 투데이(Lets Fresh Today)'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를 두고 SSG랜더스와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는 추측이 일기도 했다.

맥주는 해외 브루어리를 발굴해 주문 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들여올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시되면 이마트와 이마트24 등 신세계그룹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신세계의 SSG랜더스가 유통업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또 새롭게 선보일 맥주가 주류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세계의 야구단 인수부터 창단식까지 연일 화제를 모으며 소비자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며 "정용진 부회장이 다른 유통 채널에서는 누릴 수 없는 '스포츠+쇼핑'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일 오후 2시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는 SSG랜더와 롯데자이언츠의 야구 개막전이 열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3월 수출 538.3억 달러... 전년비 16.6% ↑

산업부, 5개월 연속 증가세
수입은 496.5억 달러 기록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역대 3월 수출 중 최고치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유제품 등 중간재 수출도 반등해 경기 회복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38억3000만달러, 수입은 496억5000만달러를 각각 올려, 무역수지는 41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3년 만에 5개월 연속 증가했고, 수출 증가율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일평균 수출도 3년 만에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1.8%를 시작으로 4월 -25.6%, 5월 -23.7%, 6월 -10.9%, 7월 -7.1%, 8월 -10.3%로 6개

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9월(+7.1%)에 반등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10월(-3.9%)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11월 +3.9%, 12월 +12.4%에 이어 올해 1월 +11.4%, 2월 +9.5%에 이어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출액은 올해 첫 500억달러 돌파다. 역대 월 수출액 중 3위이자, 역대 3월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3월 최고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월 수출액이 25개월 만에 5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월 수출액이 500억달러를 넘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3월 중 역대 처음으로 22억달러를 돌파했다. 지난달에 이어 올해만 2번째로 2019~2020년까지 최근 2년 동안 한번도 22억 달러를 넘어선 적은 없었다.

수출 15대 품목 중 14개 이상 품목이 증가를 기록한 건 2012년 2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5년 내 5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제품개발

산업부,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수요연계 R&D 통해 상용화 목표

정부가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에 본격 나선다. 2025년까지 상용화 제품 5개 이상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수요연계 R&D를 통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상용화 제품을 5개 이상 개발하고, 양산 가능한 6~8인치 파운드리 인프라를 국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력 반도체는 전력의 변환·변압·안정·분배·제어를 수행하는 반도체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란 실리콘(Si) 대비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3대 신소재 웨이퍼로 제작된다.

전자기기의 수요 확대와 전력 소비 증가에 따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로 꼽힌다. 특히, 전력 사용이 확대되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의 디지털 뉴딜과 전력효율 및 고온·고압 내구성이 필요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그린뉴딜의 핵심 부품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을

지원해왔으며, 그간의 지원을 기초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R&D 사업을 기획했다.

먼저 상용화 제품 개발을 위해 수요연계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단기에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소자-모듈-시스템이 연계된 R&D 과제를 기획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수요·공급 연계 온라인 플랫폼과 융합플랫폼 등을 활용해 상용화 성과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6인치 SiC 반도체 시제품 제작 인프라인 '파워 반도체 상용화 센터'를 활용해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파운드리 인프라 투자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부채규모·경쟁력 등 평가면 '청산'에 가치

>> 1면 '묵묵부답 HAAH'서 계속

쌍용차는 앞서 전날 법원에 HAAH 오토모티브의 투자유향서를 제외한 보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AAH 오토모티브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면 쌍용차의 P플랜 돌입도 사실상 안갯속에 빠졌다. 결국 HAAH 오토모티브는 여전히 투자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쌍용차도 생존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다. 4개월째 직원 임금은 절반만 지급되고 있으며 부품 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유동성 위기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쌍용차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게 유력하다. 부채 규모와 경쟁력 등을 놓고 보면 청산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 많다.

한편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에 쌍용차는 전날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해 자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산과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해당 필지의 장부가액은 4025억8000만원이다.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111.8%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양성운 기자 ysw@